



제 7 회 이사회 개최

'92년도 제 7회 이사회가 지난 5월 오운동회장의 주재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건설기

술관리법 개정(안)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키로 하되 위원장에는 장기웅이사를 부위원장에는 강태석이사를 선임키로 하였으며, 나머지 위원의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키로 협의하였다.



이사회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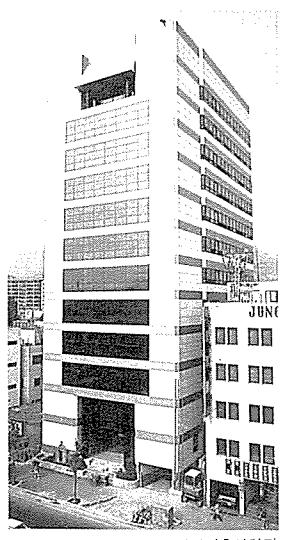
특별직장교육 실시

본 협회에서는 지난달 14일 대회의실에서 박경환 상근부회장의 주재로 경제와 물자절약에 관한 특별직장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협회를 비롯한 서울건축사회, 서울건축사 신용협동조합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날 교육에서 박경환 부회장은 날로 어

려워지고 있는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재도약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과, 특히 요즘 과다 전력소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에너지 절약에 대한 필요성과 에너지 고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활인의 자세를 역설했다.

부산건축사회관 준공



부산건축사회관 전경

부산건축사회(회장 성훈섭)는 지난달 30일 부산건축사회관 2층 전시실에서 부산건축사회관 준공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본협회 오운동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 및 각 시·도건축사회장,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단체장 등 많은 건축관련 인사들이 참석하여 부산건축사회관 준공을 축하해 주었다.

부산건축사회관은 지하 2층, 지상 12층, 연면적 5,922.77m²의 건물로서 부산건축사 회원이 오랜동안 정성을 다하여 모은 기

금으로 이룩한 거대한 결실로서 앞으로 항도 부산의 건축문화 발전에 굳건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회관 준공식과 때를 맞

추어 「부산건축사회 25년사」가 발간되어 부산건축의 역사는 물론, 우리나라 건축역사에 있어서 귀중한 사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건축사회관
준공 및 25년사
발간 기념회에서
축사를 하는
오운동 회장



건축디자인 캠프 교실 개최

대전건축사회(회장 송승호)에서는 지난 6월 30일(화)부터 7월 7일(화)까지 8일간 대전대학교에서 시내 5개 대학에서 각 5명씩 총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92 제 4 차 건축디자인 캠프 교실을 개최하였다.

『'93 EXPO를 위한 도심 관광 안내소』라는 설계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대전직할시건축사회와 대전지역에 있는 건축학과 교수들의 공동 노력으로 각 대학 건축학과 3, 4학년 학생 중 건축

설계분야로 진출 할 뜻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제 상황하에서 공동으로 설계하는 연수의 기회를 갖게 함으로서, 건축실무와 교육을 긴밀하게 연계시켜 건축분야에서의 산학협동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 대학간의 설계 프로그램의 교환과 발전의 기회를 갖고자 실시되었으며, 이는 대전 지역의 건축활동을 활성화 하는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전건축사회 회원전 개최

대전건축사회(회장 송승호)는 지난달 27일부터 6일간 대전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제3회 대전건축사 회원 작품전을 개최하였다.

본 협회 오운동회장을 비롯한 많은 건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원전에는 대전건축사회 소속 회원 29명의 건축설계 작품 37점이 전시되어 건축관련인은 물론, 많은 건축전공 학생 및 일반 시민들이 관람하는 등 지역 사회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대전건축사회
회원작품전
테이프 절단식
광경



건설정책 토론회
전경

건설정책 토론회 개최

국토개발연구원이 주최하고 건설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공사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이 후원한 「전환기의 건설산업 발전 방향에 관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7월 22일(수)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모두 3분과로 나누어 열띤 토론이 벌어졌는데, 제1분과는 장·단기 건설 경기 전망과 대응방안, 제2분과는 건설시장 개방 전망과 향후 전략, 제3분과는 기술시대의 건설산업 정책의 주제로 진행되어, 우루과이와 운드 협상에 의한 서비스 분

야의 국제 개방화에 따른 건설업의 국제 경쟁력 배양에 초점을 모아졌다.

한편, 이날 제3분과 토론자로 참석한 본 협회 강태석 이사는 「종합건설업 면허제도는 건축과 건설을 혼돈했다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으며, 시공, 감리 설계는 각 전문분야로서 전산화되는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법 체계상 있을 수 없다」고 명백한 반대 의견을 개진했으며, 「현행 법 하에서도 컨소시엄 형태의 조인트 밴처 등 종합 건설업 면허 제도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개정 건축법령 교육 실시

강원도건축사회(회장 홍영배)는 지난 7월 11일 춘천 YMCA 4층 강당에서 개정 건축법 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도내 22개 시·군 허가담당부서 공무원 및 각 회원사 건축사 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

은 건축허가 절차의 간소화, 건축공사의 품질향상, 토지의 이용도 제고 등 현행 건축법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한 개정 건축법령에 따라 일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제주건축” 제2집 발간



“제주건축” 제2집
발간 기념회 광경

제주도건축사회(회장 김창우)는 지난달 20일 제주도 주거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성과물인 “제주건축” 제2집을 발간하였다.

제주건축의 독특한 지역성이 내부의 요구와 외부의 영향으로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고 새로운 지역성을 모색하여 제주도의 현대주거 건축에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발간된 “제주건축” 제2집은 향후 제주 주거건축의 전반적인 위상을 정립하고 미래를 향한 이정표를 세우는데 커다란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23일에는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제주건축” 제2집 출간기념회를 가졌다.

본 협회 오운동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각 시·도건축사회 회장과 제주도 의회 장정언 의장, 안길현 제주도 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각급관장, 학계, 언론계, 건설업계 등 2백여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출간기념회에서 오운동회장

濟州建築



濟州道建築士會

은 이번 연구사업에 공헌한 제주도건축사회 김창우회장을 비롯한 임원에게 공로패와 기념패를 수여하는 등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한편, 제주건축사회는 본 책자의 보급을 위해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작, 실비로 제공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구입문의 : 제주건축사회 사무국이나 본 협회 출판사업부로 연락(☎ 064 52-3284, 581-5711 ~ 4)

제 1회 아카시아 건축상 제정

아시아 건축사협의회(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가 아시아 건축사들의 우수한 설계작품들을 선정, 공식 인정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건축문화 발전과 그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제정한 제 1회 아카시아 건축상의 작품접수가 지난 7월 10일 마감되었다.

1992년 6월 30일 이전에 준공 검사를 필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 이번 건축상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3개부문 총 9작품이 응모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아카시아 건축상은 8월중 예비심사를 거쳐 1차 선별하고 통과된 작품들의 자료를 보완, 최종심사 후 오는 10월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열린 제 5회 아시아 건축사대회에서 각 부문별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출품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 주택부문

- 연남동 주택 - 김영섭(건축문화)
- 삼하리 주택 - 류춘수(이공)

▷ 공공부문

- 남천성당 - 강석원(그룹가)
- 삼성체육관 - 김창수(삼우)
- 예술의 전당 - 김석철(아카반)
- 서귀포 파라다이스 호텔 - 김호(부림)
- 전주시청사 - 김기웅(삼정)
- 강촌 휴게소 - 류춘수(이공)

▷ 산업부문

- 용인 보광물류 센터 - 한경호(예창)

건축 강좌 개설

민족 미학 연구소 문예 아카데미에서는 건축설계 사무소 등의 실무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론을 갖추고 방향감각을 갖춘 작품을 창작하려는 본질적 고민속에 배움의 욕구가 크지만 충족시키지 못하고, 또한 기존 학교 교육에서는 상황인식이 부족하고, 실무에서는 기능 연마에 치우쳐 있어 산학 통합이 요구됨은 물론, 우루과이와 운드 협상에 의한 개방 시대에 대비하여 서구의 복사 논리에서 탈피하여 체계적인 자기 논리를 개발하고자, 건축역사와 이론을 통해 실천하고 죽은 역사나 현학적 이론이 아니라 현재 창작에 맞추어 한국건축의 현재 위치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 모색을 위해 이번 강좌를 다

음과 같이 개설한다.

- 강좌명 : 역사, 이론과 건축 실천
- 강사 : 김홍식(명지대), 이상해(성균관대), 김동우(경기대), 김성균(서울시립대), 조건영(기산건축), 정기용(기용건축), 이상현(대우건축), 이희봉(중앙대, 강사대표)
- 수강대상 : 건축실무 관계자 및 대학원생
- 기간 : 92. 9. 19 ~ 92. 12. 5(매주 토요일 5시 ~ 7시, 12회)
- 접수마감 : 9월 15일
- 강좌장소 : 종로 낙원상가 뒤 문예아카데미
- 문의전화 : 325-6039, 743-5872 ~ 3

제 29회 세계조경가협회 한국총회

- 8. 30 ~ 9. 4일 서울 · 경주서 개최 -

제 11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개최요강 안내

한국건축가협회(회장 장석웅)가 주최하는 “'92 대한민국 건축대전”的 공모요강이 발표되었다.

일반 공모전과 회원공모전으로 나뉘어 개최되는 이 행사는 오는 12월 4일부터 20일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작품내용

응모작품은 건축 및 도시설계에 관한 창작품(구조, 실내디자인, 조경, 가구 등 건축도시설계에 관계되는 작품을 포함)이어야 함

▷ 작품규격

- 패널 - 가로 120cm × 세로 180cm 이내
- 모형 - 가로 120cm × 세로

120cm 이내

※ 도면에서는 주제와 개념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유리, 아크릴 플라스틱, 비닐 등 반사재료의 사용은 절대 금함

▷ 심사결과 및 시상

- 심사결과 - 12월 4일(금)에 발표
 - 대상 1점 - 상금 1백만원 및 해외연수비 3백만원 보조
 - 우수상 3점(한국건축가협회 회장상,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대한건축학회 회장상 각 1점) - 상금 각 1백만원
 - 특선(약간명) - 상금 각 50만원
 - 입선 - 다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축가협회(☎ 744-8050, 3725)로 문의 바람

인구의 증가와 함께 물질문명의 발달로 파괴되어 가는 현세에 있어서 자연과 생태계의 보호는 어느 일개인, 일개국 몇몇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이해와 협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조경가협회(IFLA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andscape Architects)에서는 이러한 견지에서 각국간의 학문적, 기술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세계의 조경 · 환경 관련 단체의 역할을 중시여겨 범 세계적으로 회원 상호간의 조경 · 환경 분야의 학문적, 기술적 정보의 교류를 원활히 하고자 1948년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설립되었다. 제 29차 IFLA 한국총회는 (총회준비위

원장 오휘영 : 한양대 환경대학원 교수)총회가 1992년 8월 31일(월)에서 9월 4일(금)에 걸쳐 우리나라의 서울(롯데월드호텔)과 경주(힐튼호텔)에서 개최된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대회는 「전통과 창조」라는 주제로 세계 35개국에서 조경전문가 1000여명이 모여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며 총회행사의 일환으로 세계각국 학생들의 학생작품전, 국내 · 외 조경관련 업체들의 조경소재 및 장비전, 기타, 민속예술제, 국제학생 캠버리 등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 문의 : '92 IFLA 한국총회 조직위원회 (Tel : 961-2760 ~ 2)

■ 정정합니다.

지난 6월호 제재되었던 건축설계 저작권 재고(44p)의 필자가 尹泰燮으로 잘못제재 되었기에 尹春燮으로 정정합

니다. 옥고를 주신 필자께 사과드립니다.